

12년만에...삼학도 공원 조성 을 연말 완공

마지막 공정 조경사업 운곽...목포 새 관광명소 기대 상징정원·숲놀이터·대공연장 등 힐링공간으로 꾸며

목포시의 숙원사업인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공정인 조경 사업도 운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민선 3기인 지난 2004년 말 착공된 이후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계속돼 온 목포시 숙원사업으로,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삼학도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도 조경 사업은 큰 틀에서 도민의 숲, 화합마당, 경관숲, 상징정원, 숲 놀이터, 해국 정원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화합마당에는 대공연장과 이벤트 광장, 바닥분수 등이 들어서며, 주변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형성하는 대형 특수목이 심어진다.

매년 8월 이곳에서 개최되는 목포해양문화축제 시기에 맞춰 개화할 수 있는 해국을 심기로 하는 등 해국정원이 조성된다. 또 상징정원에는 삼학도를 상징하는 세 마리 학 조형물이 공모를 통해 세워진다.

숲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기본 테마로 피톤치드와 꽃향기(후각), 나무 촉

감(촉각), 숲 경관과 야생식물(시각), 새소리(청각) 등 어린이들의 오감을 충족시켜 주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대삼학도 사면부에는 대공연장과 난영공원을 연결하는 데크 계단길과 횡단 산책로가 조성되고, 산책로 주변에는 화목류 군식과 함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물 조형물 등이 배치된다.

특히 이번 조경사업 대상지인 삼학도는 바닷가에 있고 토양도 척박하다는 점에서 상록수이면서 내염성과 척박성에 강한 수종이 식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수종은 주목과 섬잣나무, 곰솔(상록침엽), 가시나무, 후박나무, 민나무, 동백나무(상록활엽), 팽나무, 목련, 모과나무, 자귀나무, 참빗살나무, 때죽나무, 모감주나무(낙엽교목), 눈향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영산홍(상록관목), 박태기나무, 싸리나무, 화살나무, 보리수나무, 신철쭉, 가막살나무(낙엽관목) 등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생육 환경이 열악한 경사면에는 수목 생육 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 개량과 함께



배수층 확보를 위한 맹암거가 설치된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월과 3월 조영한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와 김종열 삼학도보존회장, 권운 다솔 나무병원 대표 등 조경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비는 애초 9억3000만원에서 20억 2000만원으로 10억80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화합마당 및 대삼학도 사면부에 대한 조경 식재와 대공연장 조성이 새로 추가됐고 기존 해수

물놀이장이 조경공간으로, 기존 천수놀이터가 바닥분수와 생태연못으로 변경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현재 총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는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은 목포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삼학도의 옛 이미지 재현은 물론 친환경 친수공간이 조성돼 명실상부한 목포의 3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3년2개월만에...대양산단 11일 준공

서남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목포시 대양동 일대 155만㎡(47만평) 부지에 2909억원을 투자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한 대양 일반산업단지가 오는 11일 준공된다. 지난 2013년 2월 첫 삽을 뜬 후 3년 2개월만이다.

준공 기념식은 오는 5월 3일 대양산단 부지 내 산업 6블록에서 수도권 경제 인사, 기관·단체장, 대양산단 주주사,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달 30일 대양산단과 국비 440억원이 투입된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사진>

박 시장은 이날 "목포의 미래를 이끌 대양산단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정주여건 등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투자유치의 최적지"라며 "앞으로 대양산단에 건설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해 집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박홍률 목포시장이 최근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 수립 박차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7월 1일)를 앞두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비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3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면서 "6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보고를 거쳐 이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용역은 재정부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

역 현실과 여건에 부응하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재검토해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존치, 폐지, 조정(변경·축소)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선투자순위를 정해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차례로 해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에 목포대 송하철 교수 연임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제2대 원장으로 목포대 송하철(조선공학과·사진) 교수가 임명됐다.

목포대는 "송 교수가 최근 열린 전남대 불산학융합본부 이사회에서 제2대 원장으로 선임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임기 3년의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제1대 원장에 이은 연임이다. 전남대불산학융합

본부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대불산단에 캠퍼스를 조성해 연구·개발(R&D)-인력양성-고용의 집적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설립을 인가한 사단법인체다.

송 원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 공급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북항~내항 연결 우회도로 개설 시급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등 물류차량 출입 급증 대비 필요

목포시 북항과 내항을 연결하는 우회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에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 단지(수산지원단지)'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목포수협도 내년 상반기까지 78년만에 내항시대를 접고 북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부산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 가공 선진화 단지'를 모델로 삼은 목포 수산지원단지는 사업비 354억원이 투입돼 총 11만 8843㎡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2만8095㎡에 이른다. 이곳에는 선수물자보급장(1350㎡)과 새우젓 위판동(2650㎡), 선어 위판장 시설관리(1만1900㎡), 복지센터 판매동(2800㎡), 수산물가공 냉동냉장동(8600㎡) 등이 들어선다.

이 같은 대규모 시설입주로 향후 수산물 관련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도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일진·출입로 뿐이어서 심각한 차량정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지역 수산인들은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북항~내항간 연결도로가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 수산지원단지 조성 관련해 지난해 열린 제6회 전남도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우회 진입도로 개설이 요구되기도 했다.

북항~내항간 우회 진입도로는 목포해양대~북항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길이 710m 폭 20m로, 사업비는 총 83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인영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수산지원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항~내항간 우회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달 중 도시 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응모해 우회도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상반기 예산 65% 집행 총력

입찰공고·적격심사 단축 등 집행률 증대 10대 방침 마련

목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부시장 주관으로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조기 집행 대책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집행 부진 부서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철 목포 부시장은 "정부의 조기집행 목표달성 의지가 매우 높고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금액이 상향 지급되는 만큼 목포시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10대 방침을 세우고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10대 방침에 따르면 긴급 입찰제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를 활용해 10억 미만 7일간, 10억 이상~50억 미만 15일간 소요되던 입찰공고를 모두 5일

로 단축하고, 선급 지급률은 계약금액의 70%까지 확대된다. 또 14일 이내 지급하던 선금도 계약 후 3일 이내로 단축된다.

7일 이내 시행하던 일감상사·계약심사는 당일심사 완료로 원칙으로, 적격심사도 3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각종 집행제도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국비매칭사업도 국비만 성립전 사용(6월말까지 한시적 적용)이 가능하고 민간경상 보조금 월별 교부는 한시적으로 해제돼 상반기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대금 지급도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부시장은 "매월 열리는 관리자 회의 시 부서별 조기 집행 대책 보고회를 열어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 상반기 집행목표 65%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돈이 풀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히 단열성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우정 061-461-1800 H. 010-3631-0372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불이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고민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샐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스틸단열방수 전문기업 **연합건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광주·전남지사 NAVER 연합건설@ 검색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